

발간사

힘을 모아 더 나은 미래의 산업간호를 꿈꾸며



김순례

한국산업간호협회 회장

전국의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마가 시작되어 화창한 햇살이 아쉬운 요즘 날씨에 산업장의 현실을 반영하는 듯 느껴집니다.

오늘도 산업현장의 최전선에서 근로자의 건강권 수호를 위해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며 앞장서 애쓰시는 전국의 산업간호사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일터에서 능률과 생산성을 올리기 위해서는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몸과 마음이 건강한 상태에서 일할 수 있도록 안전한 환경과 보건사업이 서로 잘 조화롭게 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보건관리자로서 산업간호사의 역할은 건강증진, 질병예방, 근로자와 작업장의 유해요인 감시, 일차 간호제공, 상담, 관리 및 행정, 연구 및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 등의 역할을 하는 산업보건의 핵심적인 전문가이지만, 2004년 통계에 의하면 선임대상 사업장 8,898개소 중 전담보건관리자를 두고 있는 곳은 24.0%에 그치고 있고, 최근의 변화를 감안한다

면 더 악화되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외국의 연구들에 의하면, 사업장 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면 근로자의 결근율과 의사 방문비용이 감소되며, 근로자의 사기진작 및 생산성이 증가하는 등 비용-효과적이라는 보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안에 건강관리실을 두었을 때가 건강관리실이 없어 사업장 외부 자원을 통해 건강관리와 질병치료를 받는 경우 보다 2~3배의 비용 효과가 있다는 경제성 평가도 있습니다.

국내의 연구(2002)에서는 직무교육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직무교육을 받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편익이 5.6배나 높고, 규모에 따라서는 500인 이상 사업장은 6.9배, 500인 미만 사업장은 2.9배 높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2009년부터 그동안 완화되었던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직무교육'을 부활시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IMF 사태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적용된 이후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업무상 질병발생률(만인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기업의 경제적 손실이 2004년에는 14조원을 넘었습니다.

이와같이, 사업장 보건관리자로서 산업간호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질 높은 보건사업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건강한 생활양식을 개선·방해요인을 극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러나, 산업간호사는 근로자들의 건강관리제공자이자 동시에 보호를 받아야 하는 직업인이기에 이들에게 쾌적한 근무조건 제공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건강수준과 생산성 향상 그리고,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절감시키기 위해서는 보건관리자를 활용한 산업보건사업이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정된 제도적 장치를 정부 차원에서 마련해 주는 일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회원 여러분!

어려운 때 일수록 산업간호협회를 중심으로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지혜를 모아야 하며 혼자만의 짐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협회의 응집된 힘을 많이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산업간호활동의 효과성을 입증할 수 있는 공동연구를 현장의 실무자들이 함께 참여하여 해내고,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에의 참여도 더욱 배가하여야 하겠습니다.

산업간호사 여러분의 건승을 빕니다.

전국의 산업간호사님들 모두 화이팅!!